

# 특 별 기 고



## 학회는 전문성을 지켜야 한다

지철근

〈(사)국제조명위원회 한국위원회 회장〉

2004년도 전기학회는 느닷없이 학회 부진을 타개한다는 명분 아래 기존의 중견학회인 한국조명 및 전기설비학회와 동일한 연구분야인 전기설비연구회를 설치하더니 이번에는 광원연구회를 설치하여 양식 있는 양(兩) 학회 회원들로부터 전문성을 가지는 전문학회가 학회의 기본 통념을 뒤엎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필자는 전기학회를 한 동안 이끌고, 10여 년간을 한국조명 및 전기설비학회를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전기계의 학회간의 불협화음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펜을 들게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일 연구분야를 전문성이 다른 학회에 설치한다는 것은 전문분야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의 발전을 위한다는 순수한 목적보다는 자기 이해관계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므로, 이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양 학회를 이끌어 오는 동안 이웃나라 일본의 전기학회, 조명학회 및 전기설비학회와 밀접한 교류를 갖고 특별행사나 총회 등에 자주 초대를 받았었다. 그 때마다 이들 전기계열 3대 학회가 서로 초대 및 교류를 통하여 상대 학회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협조하는 풍토를 보며 부러움을 느끼곤 하였다.

우선 한국조명학회 조명공학과 이의 응용분야를 개발, 발전시키는 단체로서, 거의 대부분이 조명 전공분야 인사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조명분야는 전구·형광등기구 등 빛을 방사하는 광원, 이 광원들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조명기구, 그리고 이들을 우리 광(光)환경 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하려는 조명계획 및 설계 등의 공학적 부분과 우리 생활에 응용되는 생리 심리 및 심미적인 감각에 건축 구조·의장이 기미된 독특한 분야로 공학과 수치만을 중요시하는 전기공학과는 매우 다른 전문성을 지닌다.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의 영국·독일·프랑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대만·중국 등 세계 60여개 국가에서 전기학회와는 별도로 조명학회가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조명학회(IES)는 1906년에 설립되어 100년 간의 긴 역사를 지니고 있고 일본의 조명학회는 미국보다 10년 뒤에 발족하여 90년 가량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우리 나라 조명학회의 구성원을 보면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조명연구실에서 석·박사 출신 60명과 전기공학과 출신의 조명공학을 이수한 학사들 이외에도 일부 외국에서 건축조명을 전공한 교수, 조명디자인에 참여하였던 전기, 건축 및 미술계 인사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전기학회에 설치된 광원연구회를 주도한 멤버 중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명을 전공한 사람을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죽하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한국조명산업신문에서조차 전기학회의 광원연구회는 기존의 전문적인 조명학회가 있음에도 비전공인들이 시류에 맞추어 연구비를 쫓아 다방면으로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학자로서 민망하고 부끄러움을 느낄 뿐이다.

한편, 한국전기설비학회는 건축물에 부대되는 전기설비분야로서 건축물의 쾌적성, 편리성 및 안전성을 추구하는 각종 전기설비와 현대 정보사회에 걸맞게 정보통신화 건물관리 정보화 등 정보화 설비분야이다. 전기학회는 발전, 변전 및 송배전의 전력공급분야에 이에 부수되는 대형 전력설비를 주축으로 하는 분야로서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약 30년 간 전기설비학회가 전기학회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전기설비학회는 대부분의 전기설비분야 학자, 우수한 전기설비 계획 설계와 시공에 관여하는 기술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전기학회에는 극히 일부 소수의 전기설비 관련 기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자기 이해관계에 치중하여 전기설비연구회를 설치하였다는 것이 주변의 의견이다.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전문적인 학회는 고유의 독특한 전문성을 지닌 단체라는 것이 통념이고, 고고하고 순수하게 자기 전문분야를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문영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이에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바이다.